

월간 실적보고

2017.07

Summary of 2017 Jul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20.8% 성장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4.2% YoY 증가

- 패키지 3.4% / 티켓 27.2% YOY 증가
(11.9만명 / 12.2만명)

3. 일본 45% 유럽 38% 남태평양 16% 동남아 8% (YoY)

- 일본 4개월 평균 성장률 40%
- 유럽 8개월 동안 장거리 지역 중 최고 성장률 지속

7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성장률 20.8%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성장 14.2%, 송객인원 24.1만명
패키지 인원 성장률 3.4%, 11.9만명. 중국 THAAD 관련 외교 마찰, 필리핀 계엄령 등의 악재와 전년 7월 높은 성장률 부담으로 (YoY 21%)로 더딘 성장.
티켓 인원 성장률 27.2%, 12.2만명. 3년 동안 매달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

7월 실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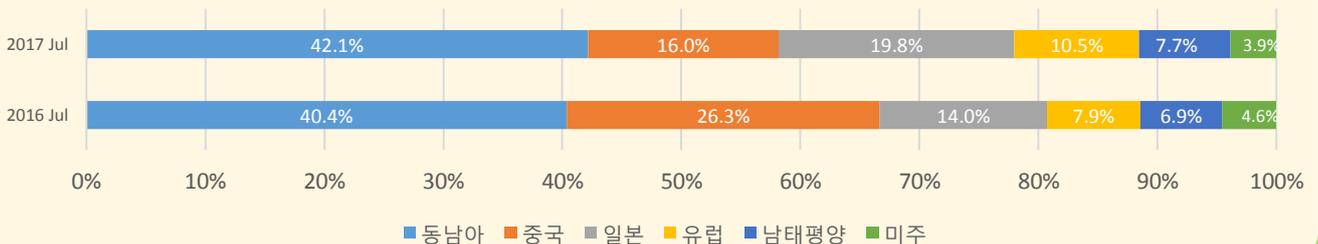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7	118,855	122,314	241,169
2016	114,952	96,150	211,102
YOY	3.4	27.2	14.2

패키지 YoY : 4월 3.5% → 5월 7.6% → 6월 20.2% → **7월 3.4%**
티켓 YoY : 4월 44.4% → 5월 39.8% → 6월 29.9% → **7월 27.2%**
총송객 YoY : 4월 18.9% → 5월 20.9% → 6월 24.7% → **7월 14.2%**

지역별 성장 (YoY)

일본 45.4% 유럽 37.9% 남태평양 15.7% 동남아 7.8%
일본 +45.4%, 6월부터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YoY 성장률로 전체 성장 주도.
유럽 +37.9%, 장거리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성 지속. 전년 7월 대비 4%p 이상 수탁금 비중 증가.
남태평양 +15.7%, 전월 7% YoY 성장률로 잠시 주춤했으나, 한달만에 다시 두 자릿수 성장으로 복귀.
동남아 +7.8%, 필리핀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현지 치안에 대한 우려 증가하여 신규예약 감소, 성장률 둔화.
미주 -12.6%, 전년 7월 85% YoY 성장의 높은 기저로 인한 부담으로 역성장.
중국 -37.0%, 5월부터 역성장 폭 매달 감소 중이나 한중 긴장 지속으로 더딘 회복세.
 16년 7월은 지역별로 최소 26%, 최대 85% YoY 성장했던 기간으로 올해 성장에 부담이 컸던 상황. 점차 줄어드는 성비수기 여행수요 격차도 영향. 그럼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매우 양호한 성장 지속.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17년 8월	17년 9월	17년 10월
증감률	12.5	13.1	42.07

* 2017.07.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3분기도 2분기 처럼 일본과 유럽이 전체 성장 주도. 중국과 필리핀의 악재, 3Q16의 높은 성장률 부담이 있는 3분기. 하지만, 중국은 2분기 말부터 천천히 회복 중이며, 필리핀 계엄령 선포로 인해 낮아진 동남아 수요는 3분기 중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 4분기 시작인 10월은 추석 연휴로 인한 높은 예약률.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증가 기대.